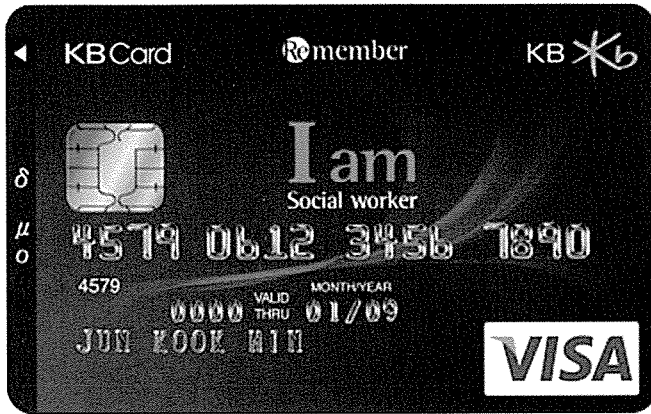


보수교육 출결체크 등 회원카드로서의 역할 이행 사회복지사의 자부심을 대변하는 'I am 카드'



지난 9월 4일, 많은 회원들의 기대 속에 I am 카드가 정식 출시되었다. I am 카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회원카드로, 국민은행의 기업·단체용 카드인 'Re*member 카드'의 일종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Re*member 카드가 이미 만들어진 기본 디자인에 로고 등이 덧입혀지는 데 비해, I am 카드는 디자인·제작 단계에서의 협회만의 독특한 디자인으로 고안되었고 한층 차별화된 혜택으로 업그레이드되었다.

I am 카드의 면면을 살펴보면, 핑크색과 흰색의 글씨로 'I am Socialworker'라고 적혀있어 회원카드임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고, 보랏빛 바탕에 깃털무늬로 장식되어 심미성 또한 뛰어나다. 또한 카드로서의 혜택도 범상치 않다. 35~50원대의 주유할인을 해주는 보통 카드들과는 달리, GS 칼텍스 주유소에서 휘발유가 기준으로 상시 70원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뿐만이 아니다. 연회비가 면제 되면, 카드 혜택이 대폭 축소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지만 I am 카드는 연회비가 사실상 면제됨에도 불구하고(연 1회이상 사용) 적립금 등의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하나 빼놓으면 섭섭할 것이 하나 있다. 바로 I am 카드의 출시기념 이벤트. 카드의 가입대상은 제한된 데 비해 이벤트의 규모가 커서


다른 카드보다 당첨률이 훨씬 높다. 이벤트의 참여방법은 9월 4일에서 10월 31일 사이에 카드를 1회 이상 사용하거나, 10만원 이상 결제하면 자동으로 추첨대상에 포함된다. 중복 당첨이 가능한 것은 물론, 그 종류도 100만원 상품권부터 인터파크 2인 영화예매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상품의 총 금액이 2천만원을 넘고 당첨확률도 높으니, 추석 선물을 준비하면서 이벤트 당첨도 노려봄직하다.

이러한 각종 혜택과 이벤트 보다 더 중요한 것이 회원카드로서의 기능인데 I am 카드는 현재 법제화를 눈 앞에 두고 있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출결 기능을 담당할 예정이다.

또 사회복지사의 힘을 모으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I am 카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국민은행에 가서 구비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단, 신청카드의 종류를 고르는 란에 국민은행의 다른 카드에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기타 란에 I am카드라고 기재하는 센스가 필요하다.

은행까지 가는 수고를 덜기 위한 편리한 방법도 있는데 바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www.welfare.net)를 이용하는 것이다. 국민은행 공인인증센터에서 공인인증서를 준비한 후, 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신청하기' 라는 링크를 찾을 수 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이번 회원카드 발급을 계기로 회원들의 권익증진과 협회의 역량강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또 회원카드와 관련하여 개진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사회복지사를 위한, 사회복지사의 자부심이 되는 회원카드, 협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많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사 카드를 우리의 자부심을 대표하는 카드로 만드는데 함께 해야 할 것이다. 

※ 카드신청은 협회 홈페이지(www.welfare.net)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